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율, 이용행태 및 지각된 효과에 대한 연구

이 은 남*

Prevalence, Patterns of Use, and Perceived Efficacy of Alternative Therapie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Lee, Eun Nam*

Alternative therapy for rheumatoid arthritis has become worldwide phenomenon this decade without scientific validation.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prevalence, patterns of use, and perceived efficacy of alternative therapies by patients attending a rheumatology clinic.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142 RA patient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at outpatient rheumatic clinic from July to August in 2001.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85.9% of subjects were woman. Mean age was 49.97years, duration of rheumatoid arthritis was 5.6years. Mean pain score was 5.29cm.
2. 74.6% of subjects perceived rheumatoid arthritis as a controllable disease. 31% of patients combined medical treatments with alternative therapies. 58.5% of patients perceived that combining medical treatments with alternative therapies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in controlling disease.
3. 77.5% had used more than one alternative therapy since the diagnosis was made. The major reason of discontinuation of use was no effect for the treatment of their disease.
4. 34.5% were currently using an alternative therapies and 50.9% were going to use alternative therapies in future.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5. 42.7% reported that alternative therapies was effective and only 3.6% reported side effects.
6. The perceived effect score was 3.14cm in general, especially the physiological score 2.91cm, psychological score 4.16cm.

In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 a high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by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And the perceived effect score of physiological aspect was not higher than one of psychological aspect.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in education program for the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Key concepts : Alternative Therapies, Prevalence, Patterns Of Use, Perceived Efficacy, Rheumatoid Arthriti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서구의 많은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이러한 대체요법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도 회의적이다(Cronan, Kaplan, Posner, Blumberg, & Kozin, 1989 ; Kestin, Miller, Littlejohn, & Wahlqvist, 1985). 관절염 환자들이 대체요법을 찾게 되는 이유는 주로 질병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장애를 동반하며 완치가 어렵다고 인식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기간 내에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치료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현대의학에 한계를 느껴 다른 치유방법을 찾게 된다(Hawley, 1984). 이렇게 비전통적인 치료방법을 찾아다니는 동안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되며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Kestin, et al., Wasner, Cassady, Kronenfeld, 1980; 김종임 & 강현숙, 1999; 이은옥, 강현숙, 이인숙, 은영, 이종수, 1997).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요법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없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 민간요법, 민속요법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고 민속요법과 민간요법 이용율을 보면 80.6%(이은옥 등, 1997), 96.6%(김종임 & 강현숙, 1999)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의 경우 대체요법 이용율이 82%(Kestin, et al., 1985, 호주), 94%(Kronenfeld, & Wasner, 1982, 미국), 66%(Boisset & Fitzcharles, 1994, 캐나다), 80%(Ramos-Remus, Gamez-Nava, Gonzalez-Lopez, Skeith, Perla-Navarro, Galvan-Villegas, & Suarez-Almazor, 1998, 멕시코) 등 다양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대체요법의 정의 및 대체요법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데 기인한다.

한편 대체요법의 지각된 효능에 있어서는 국내, 외 연구 모두 50%이상에서 대체요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용자가운데 20% 정도에서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옥 등, 1997; 김종임 & 강현숙, 1999; Ramos-Remus, et al., 1998). 이에 본 연구는 대체요법의 범주를 환자에게 알려준 뒤 이러한 치

료법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대체요법에 대한 질병치료행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율, 이용행태 및 지각된 신체적, 심리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활용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율을 파악한다
- 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행태 (이용이유, 이용경로, 비용, 이용 및 중단시기)를 파악한다
- 3) 대체요법의 신체적, 심리적 효과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대체요법 : 의사처방이외의 다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 즉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복용, 약초 복용, 식이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 마사지, 풍요법, 수치료, 자연요법, 기치료, 명상, 요가, 최면요법, 음악요법 및 침술, 지압 등을 대체요법이라고 한다.

II. 문헌 고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대체요법은 암이나 에이즈,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적인 통증과 같은 만성질환자에 의해 흔히 이용되고 있으나 (Cohen, Eisenberg, Mayer, Delblanco, 1990; Eisenberg, Kessler, Foster, Norlock, Calkins, Delblanco, 1993), 여러가지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 즉 대체요법의 문제로는 첫

째 대체요법 자체의 독성, 둘째 스테로이드나 소염제와 같은 약물의 첨가, 셋째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 오염, 넷째 방울뱀 캡슐에서 발견된 살모넬라와 같은 미생물의 오염, 그리고 정규치료의 중단 등(Ramos-Remus, Gamez-Nava, Gonzalez-Lopez, & Suarez-Almazor, 1997)이 보고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불규칙한 질병진행과정, 의학치료의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대체요법을 찾는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이용에 대한 연구(Ramos-Renus, Watters, Dyke, & Suarez-Almazor, 1999)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59.5%가 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을 보고하였고 이용자 중 47%가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 중 18%만이 의사에게 의논하였으며 3%는 대체요법을 사용하기 위해 정규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이용자 중 11%는 상당히, 29%는 약간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59%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멕시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한 Ramos-Remus et al.(1998)의 연구결과 83%가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61%가 처음 의사를 찾기 전에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19%가 대체요법을 사용하기 위해 정규치료를 중단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용자 가운데 26%만이 의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함으로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에게 대체요법의 치료에 대해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30%정도에서 대체요법을 사용한 후 매우 좋아졌고 23%는 호전되었으며, 47%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16%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과와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개인적 특성과 대체요법 이용율에 대한 Boisset & Fitzcharles

(1993)의 연구에서 66%가 과거 6개월간 대체요법을 이용해왔으며 54%가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였고 39%가 비용이 들지 않는 정신적 보완요법을 이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Cronan et al.(1989)의 연구에서도 84%가 과거 6개월 이전에 입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운동이나 기도, 보완요법같이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대체요법이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호주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Kestin et al.(1985)의 연구에서도 진단받은 이후 82%가 한 개이상의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하였고 52%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용자 중 30%만이 도움이 되었음을, 그리고 31%가 적어도 한 개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절염환자의 민속요법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연구대상자 중 73.4%가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였던 이은옥 등(1997)의 연구에서 대상자가운데 80.6%가 질병발생 이후 민속요법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10.6%만이 사용한다 하였으며, 민속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33%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만성관절염 환자들의 민간요법을 이용한 자가 통증조절행태를 연구한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96.6%가 통증조절을 위해 민간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요법을 사용한 후 인지한 통증감소효과는 10cm 중 2.93cm로 나타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작용으로는 통증악화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포함하여 만성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율은 국내,외 모두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국내, 외 연구의 차이를 보면 국내에서는 민속요법이나 민간요법의 범주에는 한

방치료가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국외연구에서는 대체요법의 범주에 한방치료가 포함된다. 또한 국내에서 지금까지 대체요법에 대해 실시된 연구들은 일반적인 만성 관절염환자들의 이용실태나 효과를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가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만의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특히 대체요법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로 신체적인 면만 조사되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의 이용행태 및 신체적, 심리적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행위를 이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7월 20일부터 2001년 8월 25일까지 D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적어도 6개월이상 경과한 환자로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총 142명이었다.

2. 연구도구

관절염환자의 대체요법 사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하여 전문인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으로는 인구학적 변수, 질병기간, 대체요법 사용경험 유무, 사용가지 수, 현재 사용유무, 현재 사용가지 수, 대체요법에 지출되는 비용, 대체요법 추구가유 및 중단사유, 대체요법 사용시기, 사용기간, 접하게 된 경로, 대체요법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효과 등이다. 대상자가 지각한 일반적인 효과정도와 신

체적, 심리적 효과정도는 10cm인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하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개방성 질문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류마티스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인 환자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가 기입토록 하였으며 빠짐없이 기입토록 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을 훈련시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대체요법 사용경험에 대한 응답 시에는 기억상 오차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거나 병원치료만 받는 환자만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대체요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배제되어 연구결과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전체에게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가 85.9%, 남자가 14.1%였으며 연령은 50-59세가 28.2%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9.97세였다. 또한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3.5%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35.2%, 대졸이상도 19.7%나 되어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3.2%였으며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9%였고 83.8%가 종교를 갖고 있

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45.1%나 되었으나 이중 12.7%는 학생이었으며 경제상태는 74.6%가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고 월 평균 수입은 177 ± 83.85 만원이었다.

질병이환기간은 1년이상 5년미만이 50%로 가장 많았고 10년이상 경과된 사람이 13.4%였으며 1년 미만인 사람은 14.8%였다. 대상자의 통증정도는 10cm중 평균 5.29 ± 2.47 cm로 중간 정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	21	14.1
	여	122	85.9
연령	10~19	5	3.5
	20~29	8	5.6
	30~39	17	12.0
	40~49	35	24.6
	50~59	40	28.2
	60이상	37	26.1
교육정도	초졸이하	24	16.9
	중졸	40	28.2
	고졸	50	35.2
	대졸이상	28	19.7
결혼상태	기혼	104	73.2
	미혼	14	9.9
	사별 이혼	19 5	13.4 3.5
종교	유	119	83.8
	무	23	16.2
직업	유	64	45.1
	무	78	54.9
경제상태	상	2	1.4
	중	106	74.6
	하	34	24.0
질병이환기간	1년미만	21	14.8
	1~5년미만	71	50.0
	5~10년미만	29	20.4
	10년이상	19	13.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49.97	13.54
통증정도(cm)	진단후	5.29	2.47
	경과기간(개월)	66.03	62.63
평균월수입(만원)	177.87	83.35	

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진단 받은 지 평균 경과 기간은 66.03±62.63개월이었다(표 1).

2. 질병과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7%에 불과하였고 완치는 안되지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4.6%로 조사되었으며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1%에 그쳐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만 다니는 사람이 69%,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사람이 31%였다. 질병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대체요법을 병행할 때가 58.5%, 병원치료만 받을 때가 41.5%로 병원치료만 단독으로 받을 때보다 대체요법을 병행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체요법 이용률 및 이용행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후 한번이라도 대체요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77.5%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사용해 본 가지 수는 평균 3.05±1.46가지였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34.5%나 되었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지 수는 평균 1.45±0.61가지로 줄어들었으며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서가 78.2%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구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서 순이었다. 과거 대체요법 사용에 소비된 비용은 기억의 오차로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49명의 대체요법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9만 4천원이었으며,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65.5%나 되었고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14.9%였고 1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50.9%가 사용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34.5%보다 증가된 것이다.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을 하였는데 진단 받자마자 “진단기”로, 진단 받은 후 질병증상이 악화되면 서를 “전환기”로,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 되면서를 “만성기”로 구분하였을 때 진단기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환기, 만성기 순이었다. 대체요법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이 40%였고, 5년이상은 16.4%로 보고되었으며 대체요법을 찾게 된 이유는 대상자들이 “질병을 낮기 위해 다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가 79.4%로 압도적이었으며 5.8%가 “병원치료가 효과가 없어서”에 응답함으로써 대다수가 질병치료를 위해 대체

〈표 2〉 질병과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질병에 대한 인식	완전 치유가능	28	19.7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가능	106	74.6
	점점 악화	5	3.5
	불치병	3	2.1
질병치료 유형	병원치료	98	69.0
	병원치료 + 대체요법	44	31.0
	대체요법	0	0.0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	병원치료만 받을 때	59	41.5
	병원치료와 대체요법 병행할 때	83	58.5
	대체요법만 받을 때	0	0.0

〈표 3〉 대체요법 이용률 및 이용행태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대체요법 사용경험	예	110	77.5
	아니오	32	22.5
중단이유	효과가 없어서	86	78.2
	비용이 비싸서	7	6.3
	부작용으로	4	3.6
	구입이 어렵거나 가족의 반대로	13	11.8
대체요법 추구시기	진단기	45	40.9
	전환기	39	35.5
	만성기	26	23.6
현재 사용여부	예	49	34.5
	아니오	93	65.5
대체요법 추구이유	의사에 대한 불만족	2	1.7
	병원치료의 효과가 낮아서	7	5.8
	병원치료의 부작용이 심해서	2	1.7
	질병을 낮기 위한 방법을 찾아	96	79.4
	대체요법 자체에 대한 신뢰	6	5.0
	대체요법사의 설득	4	3.4
대체요법 사용경로	자신 스스로	13	8.6
	다른 환자의 권유와 소개	22	14.4
	가족 및 친척의 소개	63	41.4
	매스컴을 통하여	13	8.6
	친구의 소개	24	15.8
	건강관련서적이나 인터넷	12	7.9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	5	3.3
사용기간	1년미만	44	40.0
	1~3년미만	39	35.5
	3~5년미만	9	8.1
	5년이상	18	16.4
향후 사용계획	예	56	50.9
	아니오	54	49.1
월평균지출비용(만원)	무	57	65.5
	5미만	12	13.8
	5~10미만	13	14.9
	10이상	5	5.8
변수		평균	표준편차
과거 경험가지수		3.05	1.46
현재 이용가지수		1.45	0.61
현재 월지출비용(만원)		9.41	10.62

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요법을 찾게 된 경로는 41.4%가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로 대체요법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친구의 소개, 그리고 다른 환자의 권유와 소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8.6%에서 대상자 스스로 대체요법사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4. 대체요법에 대한 지각된 효과

대체요법 이용자 가운데 대체요법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2.7%였고, 효과가 없었다가 26.4%였으며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람은 3.6%에 불과하였다. 특이한 것은 27.3%가 대체요법이 치료효과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10cm 시각 상사척도상 평균 3.14 ± 2.25 cm였고 신체적 효과는 2.91 ± 2.22 cm, 심리적 효과는 $4.16 \text{cm} \pm 2.32$ 로 나타나 신체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요법을 사용한 후 실제로 신체적 증상이 좋아진 점에 대해 개방성 질문을 하였을 때 24.8%가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체력증진과 보행증진 순이었고 “치료에 희망감을 갖게 되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심리적 효과를 표현한 사람이 1.8%였다(표 4).

V. 논 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질병의 특성 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질병조절이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 암, 만성요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자에게서 대체요법의 이용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왔다. 또한 이들 사용의 문제점으로는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동안 정규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그리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적절한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많은 대체요법의 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77.5%가 진단 받은 이후 한번 이상 대체요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이용율은 멕시코의 류마티스 질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율이 83%였던 Ramos-Remus et al.(1998)의 연구, 호주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입증되지 않

〈표 4〉 대체요법에 대한 지각된 효과

변 수	구 분	실 수	백분율
대체요법에 대한 효과	효과가 있다	47	42.7
	치료효과가 없다	29	26.4
	부작용만 경험했다	4	3.6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30	27.3
실제로 신체증상이 좋아진점 (중복응답)	통증완화	28	24.8
	체력증진	17	12.4
	보행증진	9	8.0
	부종감소	6	5.3
	치료에 희망감 가짐	1	0.9
	약부작용으로부터의 해방감	1	0.9
	몸이 가벼워짐	8	7.1
	효과없음	43	38.1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일반적인 효과점수(cm)	3.14	2.25	
신체적인 효과점수(cm)	2.91	2.22	
심리적인 효과점수(cm)	4.16	2.32	

은 치료법 이용율이 82%였던 Kestin et al. (1985)의 연구, 만성관절염 환자의 민간요법 이용율이 96.6%였던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 그리고 이은옥 등(1997)의 연구에서 민속요법 경험율이 80.6%였던 것에 비해 약간 낮은 이용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가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한 환자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중지하고 대체요법만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실제 대체요법 이용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와 이은옥 등(1997)의 연구는 만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만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대체요법 사용율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34.5%로 조사되었는데 Kestin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율이 52%, Boisset & Fitzcharles (1994)의 연구에서도 현재 이용율이 66%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현재 이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은옥 등(1997)의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율이 10.6%로, 그리고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에서도 민간요법 지속율은 17.2%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방치료와 인지행동치료까지 포함한 대체요법의 지속적인 사용율이 단순한 민속요법의 지속율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50.9%가 향후 대체요법을 사용할 계획인 것과,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할 때 질병 치료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8.5%였던 것을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사용율은 질병이 경과되면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현재 이용율이 34.5%인데 반해 현재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군이 31%로 나타나 3.5%의 오차를 보인 것은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고 있다는 문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발생한 오차로 사려된다. 즉 질병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현재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만 다니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사려된다.

대체요법을 추구하게 된 이유를 보면 79.4%가 질병을 낮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치료의 효과가 낮거나 병원치료의 부작용이 심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요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치와 증상완화를 위해 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Ramos-Remus et al.(1998)의 연구 및 이은옥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74.6%가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이 가능한 질병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완치개념보다는 증상조절을 위해 대체요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대체요법을 추구하게 된 경로를 보면 가족, 친척, 친구 및 다른 환자의 소개를 합했을 때 71.6%로 나타나 대부분이 비전문인의 추천에 의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뇨병 환자들 중 72%가 주위의 친지 및 친구를 통해서 민간요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남 등(1994)의 연구와 만성관절염 환자의 78.3%가 주의사람이나 가족의 추천에 의해 민간요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에 의해서가 3.3%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체요법의 범주에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료인의 권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요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용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진단을 받자마자 40.9%로 가장 높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발병초기에는 완치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가족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받게 되어 많이 이용하다가 차츰 병원치

료의 효과가 좋아지면서 대체요법의 이용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요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민간요법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는 것으로 이인숙, 임난영, 이은옥 및 정성수(1996)연구와 이은옥 등(1997)의 연구에서는 만성관절염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소요되는 월 평균 지출비용이 149,100원으로 67,400원인 병원치료비의 2-3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지출비용이 94,100원으로 조사되어 병원비용보다는 약간 많지만 민간요법 이용비용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보고한 사람도 65.5%나 되었고 대체요법 중단 이유에서도 "비용이 비싸서"라고 보고한 사람은 6.3%에 그쳐 대체요법 이용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심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도시에 살고 있는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이 운동, 명상, 기도, 마사지같이 저렴하고 해가 되지 않는 대체요법들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Cronan et al.(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요법이나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요법 중 일부는 1년 이상 이용함으로써 방법을 익혀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 개개인이 사용한 대체요법의 종류를 조사하지 않아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

민속요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효과는 42.7%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26.4%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표현한 사람이 27.3%나 되어 대상자들이 효과를 평가할 때 신체적인 면을 염두에 두

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체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민속요법의 효과에 대해 33%가 효과가 있었고, 54.1%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이은옥 등(1997)의 연구결과나, 지난 1년간 대체요법을 사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94명 중 40%가 효과가 있었고, 59%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Ramos-Remus, et al.(199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6%만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6%의 부작용 경험율을 보고한 Ramos-Remus et al.(1999)의 연구나 Ramos-Remus et al.(1998)의 16%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한편 류마티스 클리닉에 참석하는 환자의 대체요법 행태를 조사한 Boisset & Fitzcharles (1994)의 연구에서는 대체요법 이용자 누구도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체요법에 대한 효과를 수량화했을 때 일반적인 효과점수는 10cm 중에 3.14cm, 신체적 효과는 2.91cm, 심리적 효과는 4.16cm로 나타나 신체적으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심리적인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임과 강현숙(1999)의 연구에서도 만성관절염 환자들이 민간요법을 사용한 후 인지한 통증감소효과는 10cm 중에 2.93cm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신체적 증상 중 실제로 좋아진 점에 대해 개방성질문을 하였을 때 24.8%가 통증완화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병원에 관절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중 20.4%가 통증조절을 위해 자가 및 민간요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홍정주(1989)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통증완화 외에도 체력이나 보행증진, 몸이 가벼워짐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보고한 반면 치료에 희망감을 갖게 됨, 약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감 등의 심리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다. 추후연구에서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분석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요법에 대한 지각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고 부작용 경험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체요법 이용에 드는 의료비용이 심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료인들이 막연한 부정적 태도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로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사정하여 적절한 간호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와 지각된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수는 142명으로 85.9%가 여성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97세였으며 질병이 환기간은 5년 6개월이었고 평균 통증점수는 10cm중 5.29cm로 중증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
- 2)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74.6%가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질병 치료유형으로는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사람이 31%였다. 또한 58.5%가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3)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사용경험율은 77.5%였으며 과거에 사용하였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단이유로는 효과가 없어서가 78.2로 가장 많았고 진단을 받자마자 가장 많이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현재 대체요법 사용율은 34.5%였고, 50.9%가 향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대체요법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병원치료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낮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 5) 대체요법의 지각된 효과에 대해서는 42.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다.
- 6) 대상자가 지각한 대체요법의 일반적인 효과는 10cm 시각적 상사척도 상 3.14cm였고, 신체적 효과는 2.91cm, 심리적 효과는 4.16cm로 심리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에 대한 지각된 신체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교육시 이를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 2) 대체요법사용자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 3) 대체요법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지각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임, 강현숙 (1999). 만성관절염 환자의 민간요법을 이용한 자가통증조절태. 류마티스 건강학회지, 6(2), 242-252.
- 남문석, 김경래, 조재화, 이경미, 박현영, 이은직, 임승길, 임현철, 허갑범 (1994). 설문조사에 의한 성인 당뇨병환자의 민간요법 실태. 당뇨병, 18(3), 242-248.
- 이은옥, 강현숙, 이인숙, 은영, 이종수 (1997). 관절염환자의 민속요법 이용 형태. 간호학논문집, 11(1), 1-12.
- 이인숙, 임난영, 이은옥, 정성수 (1996). 관절염 환자의 치료비용분석. 류마티스 건강학회지, 3(2), 166-176.
- 홍정주 (1989). 만성관절염 환자의 통증행위와 우울정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

호학 석사학위논문.

- Boisset, M., & Fitzcharles, M-A. (1994). Alternative medicine use by rheumatology patients in a universal health care setting. The Journal of Rheumatology, 21(1), 148-152.
- Cohen, C. J., Eisenberg, D. M., Mayer, K. H., Delblanco, T. L. (1990). Prevalence of alternative medical treatments in HIV-infected patients : implications for primary care (abstracts). Clinical Research, 39, 692.
- Cronan, T. A., Kaplan, R. M., Posner, L., Blumberg, E., & Kozin, F. (1989). Prevalence of the use of unconventional remedies for arthritis in a metropolitan community. Arthritis & Rheumatism, 32(12), 1604-1607.
- Hawley, D. J. (1984). Non traditional treatments of arthriti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4), 663-672.
- Kestin, M., Miller, L., Littlejohn, G., & Wahlqvist, M. (1985). The use of unproven remedies for rheumatoid arthritis in Australi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43(25), 516-518.
- Kronenfeld, J. J., & Wasner, C. (1982). The use of unorthodox therapies and marginal practitioners. Social Science Medicine, 16, 1119-1125.
- Ramos-Remus, C., Gamez-Nava, J. I., Gonzalez-Lopez, L., Skeith, K. J., Perla-Navarro, A. V., Galvan-Villegas, F., & Suarez-Almazor, M. E. (1998).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by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 in Guadalajara, Mexico: Prevalence, Beliefs, and expectations. Arthritis Care Research, 11(5), 411-418.
- Ramos-Remus, C., Gamez-Nava, J. I., Gonzalez-Lopez, L., & Suarez-Almazor, M. E. (1997). Use of alternative medicine in a consecutive sample of patients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The Journal of Rheumatology, 24, 2490-2491.
- Ramos-Renus, C., Watters, C. A., Dyke, L., & Suarez-Almazor, M. E. (1999). Assessment of health locus of control in the use of nonconventional remedies by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 The Journal of Rheumatology, 26(11), 2468-2474.
- Wasner, C. K., Cassady, J., & Kronenfeld, J. (1980). The use of unproven remedies. Arthritis Rheumatism, 23, 759-760.